

공원 빼앗은 '공룡마트'

음식점 빼고 전업종 타격

- ① 시민 주차장 독식, 빼앗긴 삶의 질
- ② 상권의 블랙홀...영세 상권 초토화
- ③ 고용효과 무색한 자금 유출
- ④ 허가 내 준 광주시, 대책은 없다

대형마트 할인 공세 당해 낼 도리 없어

매출 20~30% 급감...지역경제 득보다 실

"이제 장사 좀 되려나 했는데 이 게 웬 날벼락 입니까"

5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산암마을(풍암지구)에서 만난 김모(여·43)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난 해 3월 이곳에 5평 규모의 아동복 가게를 냈다는 김씨는 "그동안 고전하지. 지난해 말부터 매출이 늘어나니 싶었는데 인근에 롯데마트 월드컵몰이 개점하면서부터 매출이 끊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서구 화정동 금호아파트 입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정모(54)씨도 "롯데마트 월드컵몰 개점 이후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며 "대형 마트의 할인공세에 영세상인들은 당해낼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대형 마트가 주변 상권을 빼앗아 들어는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대형 마트 주변의 영세상권이 초토화

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내에 문을 연 롯데마트 월드컵몰의 경우 단일 매장으로는 전국 최대라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주변 영세상권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특히 기존 대형 마트와는 달리 의류 등 짐작 효과가 뛰어난 패션몰과 할인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영세상권 붕괴의 첨병에 서고 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풍암·금호지구, 화정·염주동, 주월동 등이다. 상인들은 음식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이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의류와 청과·부식 등은 매출이 20~30% 가량 줄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월드컵몰족도 최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개점 이후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2만5천 명의 고객들이 방문해



5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지구내 노점상 모습. 인근에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매일 평균 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혀 대형 마트가 빼앗고 있는 상권의 흡입력을 인정했다.

월드컵몰 층은 또한 월트컵몰 인근 2km 이내를 1차 상권으로 분류하고 이곳에만 구매력이 뛰어난 6만7천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연간 2천억원의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매장 면적 1천 평 이상 대형 유통업체가 15곳에 달하고 입점이 확장된 곳도 3개나 된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장 잠식도 더욱 커져 이들이 지역 내에서 올리는 연간 매출액은 2005년 1조3천378억원에서 지난 해에는 11월까지만 1조2천983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세상인들의 수입은 줄어 통계청의 '도·소매업 판매액 지수'에 따르면 광주지역 도·소매 업소의 영업이익률은 1998년 9.7%에서 2004년 7.8%로 떨어졌다. 쉽게 말해 갈거리 상가들이 경우 대형 마트로 인해 1개월 평균 1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더라도 98년에는 97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지만 6년 후인 2004년에는 78만원만 손에 쥐게 됐다는 얘기다.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형 마트가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경제 전체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고려대 내신 고교별 차등

2008학년도 2학기 수시전형부터 도입 추진

교육부 '고교 등급제' 여부 조사

고려대가 2008학년도 2학기 수시전형부터 고교별로 지원 학생의 내신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고 5일 밝혔다.

이 대학 박수성 입학처장은 "고교 내신 시험의 과목별 표준편차를 활용해 예컨대 표준편차가 작은 과목은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평균점수 이상의 학생들의 등급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에 따르면 고려대는 이 대학에 응시하는 500여 고교의 과목별 표준편차를 파악, 표준편차가 큰 순서대로 하위 30%(미획정)의 학교에 대해 내신 등급을 하향 혹은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보정할 예정이다.

A고등학교의 국어 과목 시험문제가 지나치게 쉬워 평균 90점을 중심으로 85점~95점 사이에 학생들의 점수가 몰려있다면 95점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의 등급이 낮아질 수 있으며 85점인데도 9등급인 학생은 반대로 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

박 처장은 "재학 학교의 재적생 수가 적어서 생긴 손해를 보전하고 지나치게 문제를 쉽거나 어려워서 변별력이 현저히 떨어진 학교에 불이익을

▲고교 등급제 = 졸업생의 명문대 진학 비율 등을 따져 고교 간 등급을 매긴 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는 이유로 교육당국이 대학 본고사·기여 입학제와 함께 '3불(不)정책'으로 금지하고 있다.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내신 등급에서도 학생들의 내신 점수를 세분화해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가 이날 새로운 방식의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을 시도하는데 대해 다른 대학들은 아직은 반영 방식의 변경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관리처장은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만 신경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며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도 "논술의 변별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내신만 따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고려대의 고교별 내신 점수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 '고교 등급제'에 해당하는지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가짜 대리운전 조심!

강절도·성폭행 31%...피해 점수 95% 보상 안돼

지난달 대리운전 기사를 가장해 은행지점장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리운전 이용 과정에서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는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강·절도와 성폭행 등 형사 사건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며 피해 사례의 종류도 민족이 용객으로 방치와 이용객 정보 유출 등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점수된 피해 사례의 95%가 보상이 안 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리운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위반 10건(0.8%) ▲대리운전 사사정 5건(0.4%)의 순이다.

운동본부는 "과거에는 단순한 요금 시비나 무보증 문제 등이 징점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리운전을

방지한 강·절도 사건과 성폭행 등 형사 사건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며 피해 사례의 종류도 민족이 용객으로 방치와 이용객 정보 유출 등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점수된 피해 사례의 95%가 보상이 안 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리운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출근길 안개조심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끼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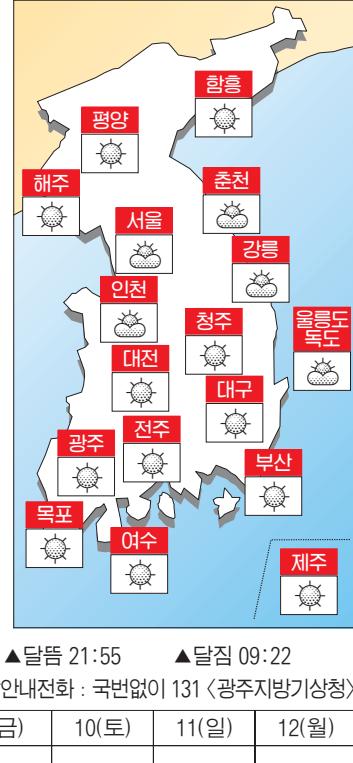
다.

광주	구름조금·아침안개	2~14°C
목포	구름조금·아침안개	3~14°C
여수	구름조금·아침안개	5~13°C
원도	구름조금·아침안개	3~14°C
구례	구름조금·아침안개	-2~14°C
해남	구름조금·아침안개	-3~14°C
홍천	구름조금·아침안개	-3~14°C
충주	구름조금·아침안개	1~15°C
전주	구름조금·아침안개	-3~16°C
정읍	구름조금·아침안개	-1~14°C
남원	구름조금·아침안개	0~15°C
원주	구름조금·아침안개	1~13°C
봉화	구름조금·아침안개	-3~14°C
제주	구름조금·아침안개	0~13°C

2월 6일

(음 12월 19일)

◇전국날씨



기상안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수)	8(목)	9(금)	10(토)	11(일)	12(월)
날씨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최저/최고	2/13	6/9	6/12	0/9	-2/7	-2/8

차세대 트랜지스터 메모리 소자 개발

광주과기원 김동유 교수팀



이 연구 결과는 메모리 제조 단계를 획기적으로 낫출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소자는 '플라스틱 전자공학'과 접목해 구부릴 수 있고 투명하며, 가벼우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차세대 유기 트랜지스터 메모리 소자"를 최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소자는 기존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유기 반도체 증과 절연막 사이에 전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고분자 전자 저장층을 삽입, 털한 메모리 특성을 구현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내년 윤년... 실제 공휴일 65일

2008년(戊子年)은 윤년이 있으며 실제 공휴일 수가 6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석재)에 따르면 단기 4341년인 내년은 윤년의 해로 2월이 29일까지 있어 일년이 366일이다. 공휴일은 52일의 일요일과 14일의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연휴 포함)을 합해 66일이나, 추석(9월14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5일로 올해보다 하루 적다.

2일 연휴는 3.1절(토), 어린이날(월), 석가탄신일(5월12일·월)이 있다. 설연휴는 토·일요일과 연결돼 5일 연휴가 된다.

/연합뉴스

새학년 새학기 "책상SET" 특별전

행사기간 : 2월 1일 ~ 2월 25일

이벤트 1. H형책상 구매고객께 '나동의자'를 드립니다.



백석 H형책상SET..... 450,000원



프린체스 H형책상SET..... 450,000원



무무엘로우 H형책상SET..... 439,000원



박자 트원책상..... 499,000원

이벤트 2. 트원책상을 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가 이벤트



무무블루 H형책상SET..... 439,000원



도체미 H형책상SET..... 450,000원



8가지 아동 의자(125,000원 상당) 중



택!



탁!



탁!



탁!

